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향과 그 실천 방안

2003년 8월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

김 준 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향과 그 실천 방안

지도교수 : 박 정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윤 리 교 육 전 공

김 준 영

김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8월

위원장 : 조 용 현



위 원 : 안 종 수



위 원 : 박 정 호



## 목 차

I. 서 론.....	P.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P.1
2. 연구의 문제와 방법.....	P.2
3. 연구의 제한점.....	P.2
II. 본 론.....	P.3
1. 인성 교육의 개념.....	P.3
가. 인간 교육이 곧 인성 교육이라는 관점.....	P.3
나. 인격 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라는 관점.....	P.4
다. 심성교육과 가치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란 관점.....	P.6
2. 인성교육의 이론적 배경.....	P.7
가. 전통적 사회화의 입장.....	P.7
나. 인지발달적 입장.....	P.8
3.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문제점.....	P.11
4.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	P.13
가. 모든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P.13
나.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인성교육.....	P.14
다. 도덕적 학급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P.17
5.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	P.19
가. 교과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P.19
나. 특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P.20
다.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P.22
라. 특별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P.25
III. 결 론.....	P.27
참 고 문 헌.....	P.29

## 국문초록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와 편의주의 및 생명경시풍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의 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인성교육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의 인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인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인성과 관계되는 낱말로서, 인품, 인격, 성격, 인간성 등이 비슷하게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인성이란 말은 인간다운 특성으로 개성과 인격, 도덕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람직한 인성이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갈수있는 성품을 말한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인성은 교육에 의하여 성장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인성교육이란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인간다운 품성을 함양하거나 고양시키는 교육이라고 할수있다.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서의 성품, 즉 인성을 갖춘 것으로 볼때, 인성교육은 지·정·의 및 행동적 측면 모두에 걸치는 통합된 전인으로서의 인간교육이 될것이다. 즉,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러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화롭게 통합해 주어 고운 마음을 가꾸어 가도록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바람직한 가치실현을 돕고 더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해 나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말할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 및 사회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가정과 사회와 더불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도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도덕과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

라 전 교과와 관련하여 통합된 의미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 수업 뿐만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 져야하고 학교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은 가정 · 학교 · 사회가 연계되어야 진정한 인성교육의 완성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성, 인성교육, 학교교육

# **The Directions of Humanity Education of The School and The practical Plan**

Ethical of Education

by Kim Jun Young

Major Advisor : Park Jeong H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2003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발달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역기능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 병리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가치의 상실,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공동체의식의 상실, 도덕성의 상실 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즉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 등으로 정신의 황폐화와 인간성의 몰락으로 정신세계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각종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가출, 원조교제 등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과 탈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 경시 풍조로 인한 청소년 강도살인사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사건,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등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가정적으로는 핵가족화와 자녀수의 감소현상으로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오던 가정교육이 약화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성격 형성, 가치관 형성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해오던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 등 사회적 기관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학교교육의 기능은 비대해져 가고 있다.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sup>0)</sup> 이 개혁 방안에 따르면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통합화된 교과지도,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오늘날 우리 교육에 있어 바른 인성을 가진 인간을 기르고자하는 인성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다. 학교에서의

0) 교육월보 통권 178호(1995),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p.80

인성교육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인수 학급과 과다한 수업시간 배당, 교사들의 과다한 잡무 등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성이 학교내의 요인보다 학교외적 요인, 다시말해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또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저해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러한 인성교육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볼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알아볼것이다.

## 2. 연구의 문제와 방법

위에서 기술한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해 볼것이다.

- 가. 인성교육의 개념은 무엇인가?
- 나. 인성교육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 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 마.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문헌 연구에 의존하며 학교에서의 올바른 인성교육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 II. 본 론

### 1. 인성 교육의 개념

인성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하고, 또 인성이라는 용어가 너무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인성교육의 개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건데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나누는데는 큰 의미가 없고 단지 강조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나눈것은 한마디로 추상적이고 다양한 인성의 개념을 정리하기 쉽도록 한것에 의의가 있다. 다시말해 이 3가지 관점중 어느 하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개념은 이 모든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 가. 인간 교육이 곧 인성 교육이라는 관점

인간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며 이는 이미 우리의 전통교육에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의미가 규정되어 왔다. 이것의 의미는 공자가 논어전편을 통해 일관되게 주창되어온 공자의 도, 덕, 인의 가르침과 상통하는 것으로 사람의 올바른 삶과 행실 그리고 남을 돕는다는 것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가치를 의미한 것이다. 이는 곧 인, 의, 예, 지로서 인자함과 의로움과 예의를 지킴과 참다운 지식의 배움을 교육의 근본가치로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다운 인간상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면 곧바로 인성교육은 이러한 인간상을 만드는 교육이라 하겠다.

## 나. 인격 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라는 관점

인격이란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인품,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를 뜻하는 것인데 물건에 품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격이 있어 저차원적인 인격으로부터 고차원적인 인격의 정도가 있으며 결국 인성 교육이란 고차원적 인격의 소유자를 만드는 교육이라 하겠다. 그리고 인격은 곧 주된 배움이 도덕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인격교육은 도덕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격의 구성요소를 도덕적 앎과 도덕적 감정과 도덕행동의 세 가지 요소와 이의 하위 요소로 보면 인격교육은 옳고 그름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행동으로 실천시키는 교육이라 하겠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인격의 인지적 측면이다. 인격의 인지적 측면은 적어도 다음 여섯 가지의 특수한 도덕적 자질을 포함한다. 즉, 문제 상황의 도덕적 측면을 아는 것, 도덕적 가치들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가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 균형 있는 관점을 취하는 능력, 도덕적 추론의 능력, 사례 깊은 의사 결정의 능력, 그리고 도덕적 자아 인식의 능력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합리적인 도덕적 사고 능력들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성숙되고 민주사회의 참된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인격의 정의적 측면이 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매우 지적으로 세련되게 다루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단지 지적인 능력만을 키우는 도덕교육은 판단과 행동을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인격의 정서적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인격의 정서적 측면은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특질들을 지니게 된다. 즉, 양심(옳다고 판단한 것을 행함에 있어 이를 의무로 느끼는 것), 자아존중, 감정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 통제, 그리고 겸허함(자신의 도덕적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치는 자세)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격의 행동적 측면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그 도덕판단과 감정을 효과적인 도덕행동으로 옮기는데 종종 실패하곤 한다. 그러므로 인격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도덕적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격의 세 번째 측면인 이 도덕적 행동은 세 가지의 또 다른 도덕적 자질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잘 듣고 의사소통하며 서로 협조적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어떤 기능들(skills)로 구성된 능력(competence)이다. 다른 하나는 의지(will)로서 이는 우리의 판단과 정신적·육체적 힘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습관(moral habits)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길을 택해 나아가는 어떤 믿을 만한 내적 성향 또는 기질을 뜻하는 것이다.<sup>1)</sup>

김태훈 교수는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인성’+‘교육’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는 또 인성교육을 ‘성격교육(personality education)’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인격은 주로 후천적, 규범적, 가치 지향적 용법으로 사용되나, 성격은 천성적, 기술적, 가치중립적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그가 말한 인성교육이란 철학적 관점에서의 인성의 의미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 또는 ‘가치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성 교육이란 말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그 고유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자나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인성교육’이란 용어가 우리 교육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경우에 강조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으로 ‘막가파’나 ‘지존파’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나 노부모 유기와 같은 패륜범죄가 일어나거나,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인성교육이 잘못됐다’, ‘인성을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다. 즉, 반인륜적, 비도덕적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1) 정세구 외 옮김(1995), 『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pp.23~24

보호하고 아울러 그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인격을 갖추었다’, ‘인간이면 다 인간이나,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등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그를 평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인성교육’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바를 갖추도록 교육하는 ‘인격교육(人格敎育)’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인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김태훈 교수가 이야기 하고 있는 ‘인격(character)’이며, 우리가 말하는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인격을 기르기 위한 교육, 즉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 것은 각 구성원들이 훌륭한 인격을 구비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한 리코나의 견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sup>2)</sup>

## 다. 심성교육과 가치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란 관점

남궁달화 교수는 ‘인성교육이란 곧 마음을 교육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준다. 마음의 통합은 지(知), 정(情), 의(意)의 발달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진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수준에 맞도록 ‘이해하는’ 지적 영역과 ‘체험하고 실천을 결의하는’정의 영역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 영역이 통합되어 조화로운 인격을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그들의 지(知), 정(情), 의(意)를 조화롭게 발달시켜 마음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다른 한편, 인성교육을 학생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교사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볼 때, 인성교육이란 일종의 가치교육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유일한 존재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때

2) 강현근(2001), 「덕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학교 인성교육의 올바른 방향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13

비로소 사람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을 심성교육과 가치교육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인성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미상의 근본적 차이보다 접근방법상의 강조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인성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 첫째, 인성교육은 긍정적인 세계관과 자아관을 가지고 밝은 성격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며
- 둘째, 인성교육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를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며
- 셋째, 인성교육은 도덕성이나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하겠다.

## 2. 인성교육의 이론적 배경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성의 개념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성의 개념을 하나로 통합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누구의 가치가 가르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도덕적 가치와 인성의 특성을 가르칠 직접적인 방법 또한 한가지로 제안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각 이론들을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2가지 방법중 어떤 한 방법만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 2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절충시켜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치를 교사가 직접 전수시키는 전통적 사회화의 입장과 학습자에게 스스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덕목이나 품성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인지발달적 입장을 모두 적절히 절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가. 전통적 사회화의 입장

전통적인 사회화의 입장에 의하면 좋은 인성은 그 사회가 중요하다고

3) 이동화(2001),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과의 대화학습과 실제 수업 운영」,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는 규칙과 가치를 직접 가르침으로서 갖추어지며 이들 가치는 어린이의 생활에서 중요한 어른에 의해 시범 보여지고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기초한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 불림)은 보통 분명하게 "그른 것"에서 "옳은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치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확실한 체제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함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예를 배운다는 입장이다. 사회화의 주요 과제는 아이들로 하여금 문화의 지혜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커다란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단순히 통제가 아니며 사회화되는 것이 학습하는 것이다. 이 사회화의 입장은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일치하며 인간 발달에 대한 다른 심리학적 이론 (정신분석, 인간주의, 구성주의)보다 행동주의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행동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도덕적 습관에 관한 지도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능력은 물론 사회적으로 계승해 온 생활 규범이나 이를 뒷받침할 세계적 인간관 등의 가치와 태도를 비롯하여 윤리적인 지식과 실제적 기술 등의 학습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sup>4)</sup>

## 나. 인지발달적 입장

인지 발달적 입장은 가정하기를 좋은 인성은 대인간의 상호작용과 도덕적 반성과 분석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체계의 구성의 결과로 본다. 이 입장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에서 유래하고 일반적으로 "도덕교육" 혹은 "정의사회" 프로그램이라 한다.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교육자는 "도덕화" (moralization) 혹은 아이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을 피하고 도덕적 판단의 점진적 발달을 위한 자연적인 또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ohlberg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연령에서 도덕적 결정에 대해 어떻게

4) 김석태(2000),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이야기하는가를 관찰하였으며, 어떻게 동기와 사회적 인식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하는 발달 형태를 발견하였다. Kohlberg는 아동의 도덕적 분위기를 활기 있게 해주는 "정의 사회" (just community) 구현을 추구하였다.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은 개개인이 성숙 할수록 질적으로 서로 다른 발달의 단계 (1단계에서 6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성숙한 도덕적 사고와 미성숙한 도덕 사고의 차이는 단지 단계를 거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 뒤에 있는 추리이다. 도덕적 추리가 무엇인지, 내적 논리 혹은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30년이 넘게 Kohlberg는 연구를 하였다. Kohlberg의 관점에서 일반적 교육의 목적과 구체적인 도덕교육의 목적을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덕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이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자가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은 이기적이고 또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동기화보다 도덕적 원리(예, 존경과 타인의 배려)에 기초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한다. 도덕교육은 개인이 그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경험의 의미를 만들 때 여섯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 혹은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Kohlberg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발달은 교육의 일차 목적이며 도덕적 이슈와 딜레마를 논의함으로서 향상된다는 것이다. 도덕발달의 Kohlberg 이론은 도덕교육에 있어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교사는 물론 학생이 도덕적 철학자이므로 학생의 도덕발달은 학생을 도덕적 대화와 토론에 참여케 함으로서 증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토론은 학교의 기초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과 교사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여야 하며 그들의 참여는 교육에 대해 민주주의, 정의사회 접근을 통하여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교육에 있어 Kohlberg는 도덕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뚜렷한 강조를 두고 있다. Kohlberg는 덕은 대화적으로 가르쳐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개념과 이에 대한 개인의 이해가 도덕적 세상과의 경험을 통하여 구성되어 지는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Kohlberg는 덕(정의)을 가르친

다는 것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길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덕교육은 인간을 위로 이끄는 것인지 그전에 없었던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 신념, 가치 혹은 본연적 가치의 자연적 발달의 변화를 강조한다.

Kohlberg에 있어 도덕 교육은 가치를 전수하는 것도 도덕적 선을 자연스럽게 펼치는 것도 아니다.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세상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반영의 결과로서 개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구성인 것이다.

도덕교육에 대한 Kohlberg의 초기 접근은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를 교실에서 사용하여 도덕적 토론과 사고를 자주하고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덕적 담론의 힘을 강조하는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스라엘 기부즈에 대한 연구를 한 이후 그는 도덕교육에 대한 그의 접근을 확장시켜 가상적 딜레마에서 부터 사회 집단에서의 개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옮겨서 초점을 두고 있다. Kohlberg에 의하면 도덕 교육의 핵심은 지지적인 환경 내에서 도덕적 논쟁점에 관해 학생들로 하여금 추리를 연습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연령이 어떠한지 간에 교사는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서 자신의 도덕적 추리와 행동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교실에서건, 지역사회에서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은 단지 도덕 특성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성숙한 방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교실과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발달을 증진시키는 환경과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다. 도덕적 의사 전달과 행위의 결과와 원리적 논쟁점을 조사하려는 환경과 협동적 시도의 결과로서 학생들은 인지발달을 위한 이상적인 교육적 조건을 갖게 된다.

### 3.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문제점

인성교육 중 인지 발달적 모형 중심의 도덕적 추론의 방법에 의한 지도는 이론상으로 도덕적 사고력, 판단력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합



리성이 있을지 모르나 습관이 안된 도덕적 추론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 중 전통적인 사회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입장도 좋은 습관을 통한 도덕적 추론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다는 이점도 있지만 도덕적 사고력, 판단력,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접근 방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두가지 접근 방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에서 중시하는 정의적 영역의 학습에는 학교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인성교육은 그 성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Hartshorne과 May의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발표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특정한 덕을 계발하려는 직접적이고 교훈적인 형태로서 초기 인성교육은 이후의 미국의 공립학교에 거의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다. 여하튼, 어린이들의 사회화, 그 중에서 특히, 가치관, 신념, 행동성향 등의 학습에는 가정, 교우관계, 대중매체 등 학교 외의 요인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현재의 학교 분위기 속에서 참다운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인성 교육적 접근은 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이수과 세계화, 과학화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 중심의 기능 향상에만 치중하고 있고, 덕윤리를 중심으로 한 도덕교육, 특히, 성품 계발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은 경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보통 학생 1인당 2.1개 정도나 되는 학교 밖에 과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의 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고 별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여유

도 없는 형편이었다.

셋째, 다인 수 학급과 과다한 수업시간 배당 그리고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와 관계없는 많은 잡무가 부가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성교육에 대한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학교 현장은 교실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져, 학급당 인원수나 교실의 여건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으나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맞는 개별화 지도가 가능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인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활동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 아침 청소활동 등이 모든 학교에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봉사활동의 실정이다. 이러한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체제 하에서 교사 자신들이 학생들 개개인의 인간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sup>5)</sup>

다섯째, 현재 학교에서는 너무 편파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본다. 현재 제시되어 있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정상적으로만 운영한다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예체능 교과 및 특별활동, 재량시간 운영의 소홀 등 편파적 교육 과정 운영이 자행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여섯째, 기타 인성교육의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식중심 학습으로 인한 도덕교육의 소홀
- ② 교육 관계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의식과 구현의지 미약
- ③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 ④ 핵가족화, 생활 방식의 변화로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 ⑤ 획일적 인성교육의 방법
- ⑥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지도 미흡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5) 박성진(2001),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내용 분석」,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것으로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 4.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

### 가. 모든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의 한 부분이지 또 다른 특별 교과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성교육은 문학이나 사회과와 같이 명백한 과목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수학교사는 생활 속에서 사회적 문제와 결부된 수학적 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sup>6)</sup>.

훌륭한 인성은 다차원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이를 각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인성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경험들의 집합들이다. 모든 지식이나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선을 알게 하지는 않지만, 국어나 사회과 주제의 대부분을 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형식적인 교육과정 속에 나타난 이야기, 문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과 세상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될 수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심오하고 긍정적인 교수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Williams는 학생들이 Bennet가 제시한 여덟 가지 민주주의의 가치들(공정성, 친절, 정직, 인내, 책임감, 조국에 대한 사랑, 존경, 용기)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공식적인 수업을 통해서 최상의 가치인 존경을 배울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학생들은 긍정적인 도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언행일치의 가르침과 모델링에 의한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6) 정세구 외 옮김(1995), 『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pp.106~107

서 학습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는 가치를 부지불식간에 가르친다. 모든 것은 도덕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교수 행의 역시 도덕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은 즉, 생활 자체를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비체계적인 잠재교육과정으로 도덕교육의 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한 인성 발달의 성과들을 조직적으로 형식적 교육과정에 담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 나.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인성교육

인성교육의 중요한 전제는 학교와 공동체가 아동과 청소년을 발달시키는데 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 돕고 개인적 결합을 강하게 만든다. 변화하는 사회의 규범들은 생활을 저해하는 심리적 유행병에 반응하기 위해서, 학교는 인성 발달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학교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전략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학교는 '문제교정'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뒤르켐은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므로 도덕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라고 하였으며, 듀이도 학교와 사회의 이원론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고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관여하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 친회와 다른 학부모의 이해 집단을 결성하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와 빈번한 교류를 유지한다.

셋째, 학부모 자원자를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하고, 교사 또는 도서관리 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넷째, 학교에서 지역사회 또는 지역 상공인을 장려한다.

7) 김석태(2000),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13

다섯째,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들을 초청한다.

여섯째,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교육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방과 후 시간 동안 지역사회 조직을 위해 학교를 개방한다.

여덟째, 지역공동체 단체와 공인된 ‘이달의 학생’의 상을 수여할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지역공동체에서 화합의 장소로 만든다<sup>8)</sup>.

이렇게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가정, 학교, 사회를 들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또래집단, 대립개체 까지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교육의 강화와 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성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약화를 극복하고 다시 가정의 중요성과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만큼 인성 교육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인성 교육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학교가 의도적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바를 먼저 시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는 부모의 이기적인 교육관을 공동체 중심의 교육관으로 전환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극도의 이기적 성향이 강하여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김석태(2000),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3~14

교육부에서 시달된 인성교육의 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니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즉, 인성 교육의 방법으로 전 교과,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에서 대화, 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 실천적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윤리를 내면화시키고, 야영장, 수련원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단체 수련 활동을 활성화 하여 극기력,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적 문제 해결을 통한 실천학습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실천적 인성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속에서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생활의 공간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에는 협동정신, 봉사정신, 질서의식, 책임의식 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이나 학교보다도 동료 집단이나 대중매체, 그리고 일반 사회 풍조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대 사회는 대중문화, 상업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내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와 관계는 비인격적이고 흥미 위주의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 속에 빈곤 상태인 환상적 욕구불만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충동적이 되고 가치관의 갈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건전한 공동체 의식과 협동과 질서를 갖게 하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sup>9)</sup>.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모와 교사 및 기성세대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실천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가정을 비롯하여 학

9) 이원희(1999),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3

교와 사회의 모든 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즉, 인성 교육의 방향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사회와 대중매체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sup>10)</sup>.

## 다. 도덕적 학급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가족의 세대간 가치 전승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가치전수의 기능을 맡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로 인해서 학교는 다음의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가치들을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는 어린이들이 불행한 가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들의 할 일에 집중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따뜻함을 느끼고, 책임있는 학생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정적인 도덕적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뒤르켐에 의하면, 가정은 너무나 작고 개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전체를 돌이켜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학교는 사회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거나 책임을 맡은 일에 어느 정도로 열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흔히 ‘학교의 사회적 풍토’ 또는 ‘분위기’라고 부르는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 아동들이 속해 있고 각각의 공동체들은 상호의존과 상호존중을 공유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적, 참여적, 지지적인 환경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인성의 발달은 좋은 도덕적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질적으로 가치 있는 교수란 학습자인 학생들을 윤리적으로 보살피며 존중하여서, 교실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학교는 더욱 더 인간적인 장소가 될 수 있으며, 비로소 가치를 전달 할 수 있다. 즉, 옳은 일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10) 이호중(2001), 「인성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13

학급교사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교실환경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적극적인 학급환경을 수업의 우선순위에 둔다.

둘째, 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의 일을 할당한다.

셋째, 협동적 학습과 같은 사회학습기법을 도모할 교수방법을 이용한다.

넷째, 학생 투입을 중시할 방법으로 학생과 상호교류 시킨다.

학급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가장 일반화 된 것은 협동학습이다. 협동학습의 장점으로서는 협동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 교실에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는 점, 기본적인 삶의 기능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 학업성적, 자존심, 학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점, 교육에서 평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경제의 부정적 측면들을 막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집단 학습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서의 협동학습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수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을 도덕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결코 인성의 발달이 이루어 질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유능한 교사일 것이다<sup>12)</sup>.

그렇다면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는 어떤 지도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획일적, 일률적으로 행동을 규제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화 되도록 한다. 학생 각자가 스스로 올바른 도덕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덕목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범적

11) 김석태(2000),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12) 김석태(2000),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이지 못한 교사가 아무리 좋은 덕목을 지도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은 교사들에 대하여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사는 학교의 일상 생활에서 학생들에게 도덕적 인격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지를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등의 실천을 스스로 다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학교·사회가 상호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학교·사회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학부모와의 연계지도를 통하여 인성교육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체질화 하도록 한다. 덕목의 학습은 학교 및 가정에서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된 덕목 일지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내면화, 습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sup>13)</sup>.

## 5.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

### 가. 교과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학교생활의 70% 이상이 교과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교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안목으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물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물리학적 현상을 바라볼 때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방법은 그와 동일하게 바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교

13) 「인성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호중, 2001, pp.14~15, 한국교원대학교

과에서 그러한 안목을 키워 줄 수 있다면 별다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전인적 인격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인성교육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인성교육인양 인식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안목으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교과의 가치목표를 중시하면서 교수-학습과정에서 그 지식에 담긴 정신적 가치와 접하게 함으로써 깊은 감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과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학교교육과정에서 칸막이 된 낱낱의 교과활동이 분리된 채 강조되어 왔으나 그것들이 한 학생의 인격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인간형성에 작용하는지 검토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이다.<sup>14)</sup>

그러므로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논의할 때 분절된 교과들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관점에서 교과를 다시 바라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교체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이 인간다운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면, 인성교육의 문제는 도덕과나 사회과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이고 나아가 학교교육 전반에 관한문제이다.

내용으로서의 인성교육과 아울러 과정으로서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수업과정은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이 그야말로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그 전달내용이 감화를 줄 수 있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인간적 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sup>15)</sup>

14) 김영환(1997), 「교육방송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방향에 관한 탐색」, EBS교육방송.

15) 경상북도 교육청(1995), 「인성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생동감 넘치는 학교」, 실천자료 4-1.

## 나. 특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특별활동이란 교과활동 이외의 모든 학교활동을 말한다. 특별활동의 하위영역으로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이 있고 고등학교는 여기에 단체활동 영역이 추가된다. 학급활동이나 학교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협동봉사정신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클럽활동을 통하여 개성신장과 소질을 계발하고 취미활동을 강화하여 바른 인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활동의 지도방향으로는 지도내용의 다양화, 지도방법의 인간화, 학급단위 활동의 강화, 융통성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이중 특별활동의 한 종류인 봉사활동 학습의 필요성과 사례를 살펴보자.

봉사학습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진실되게 남과 더불어 생활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인성을 육성시키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정의감, 타인에 대한 이해, 시민의무감 등과 같은 건전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

봉사활동 학습은 또한 앞으로 자신이 택해야 할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게 된다. 더 나아가 봉사 활동은 학생들의 모험심과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탐구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신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쿠켄달(KuyKendall)은 봉사활동이 학생들의 비학문 분야에서 인격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ASCD(보조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각종 모임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커리큘럼과 공동체 학습의장이 마련된다면 인격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의 계획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sup>16)</sup>.

봉사활동의 실례를 들어 보면 남부 아파라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16) 정제구 외 옮김(1995), 『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p.87

매월 한 번씩 토요일에 여행을 통해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농촌 기사를 도우면서 무료 숙박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학생의 50% 이상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남부 아파라치아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봉사활동의 주요 기능인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이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게 한다.'하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상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아주 좋은 여건에서 편안한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매주 20명 이상이 노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상점이나 기업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용돈도 벌고 앞으로의 생활 훈련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일생 처음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에 의존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노인들이 '나는 기운이 다 빠져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건전한 시민 의식과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선배들을 방문하고서는 '저는 젖먹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실하게 일손을 돕고 활동하는 것은 봉사자와 피봉사 기관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인격형성 교육에 명백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학생들 중의 일부는 추상적인 사회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식과 품성을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추진하고있는 봉사활동 계획도 어쩌면 하나의 또 다른 모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 학습은 학생들의 인격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유용한 교육활동 체제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7)</sup>.

## 다.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17) 정제구 외 옮김(1995), 『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pp.88~89

학습지도의 일차적 목표가 지적인 성숙에 있는 반면 상담과 생활지도는 지적인 영역 외의 인격적인 성숙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상담적 원리를 학교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8)

- ① 상담의 원리는 학교의 상담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교사는 상담에서 언급하는 상담자적 태도를 학생들과의 일상적 상호 작용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② 학교 상담자에게는 상담자의 기능 중에서 치료 및 교정보다는 예방과 발달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③ 학교 상담자에게는 치료 및 교정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발견, 평가, 정보제공, 행동변화, 그리고 의뢰의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상생활에 상담적 원리와 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상담시간 이외의 학교생활의 일상 속에서 이 원리와 태도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에서 승인 반응을 보이고 학생의 얘기를 잘 들어주어 공감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보여주는 행동이 중요하다. 학생에 대한 일관적이고도 수요적 존중의 자세가 유지되어야 하고 학교생활과 그 외의 환경에서 보여주는 일상 속의 태도와 모범적 행동이 상담기법이나 전문적 지식의 개입보다 더 중요하다.

상담의 기능이 예방과 발달에 있기 때문에 상담활동이 곧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사후 치료나 교정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관찰하여 방지하며 단지 문제행동을 치료하여 고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여 자아실현의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구체적 상담의 방법으로는 정기적 면담, 쪽지상담의 활용, 동년배의 친구 혹은 또래 상담자 이용, 집단상담, 교사에 의한 부모교육 등이 있는데 문제와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를 발견하고 그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18) 한국교육학회, 1998, 『인성교육』, 문음사, p.307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행동을 치료, 교정하며 행동의 변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기본과제를 포함한다. 교사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 방법들을 숙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즉 교육적, 가정적, 사회적, 직업적,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문제를 자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저마다 가지고 있는 흥미, 적성, 능력, 성격 등 인격적 특성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발견하도록 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개인에게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통하여 현명한 선택과 적응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며 자유롭고 책임감있는 민주사회의 육성과 자기지도 및 자아실현을 통한 올바른 행복한 삶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

이러한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자기발전을 자극하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사랑에 기초하며 처벌보다 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생활지도 영역에는 교육지도, 직업지도, 성격지도, 건강지도, 사회성지도, 여가선용지도, 도덕지도, 종교지도 등이 있다. 이러한 영역의 총화는 결국 생활지도라기보다는 교육의 전체적 영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아래와 같은 5개의 주요생활지도 활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① 학생조사활동

학생의 인적사항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② 진로정보활동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발달이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③ 상담활동

내담자와의 공감적 대화를 통해 자아실현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

19) 김충기(1998), 『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교육과학사, p.31

④ 정치(定置) 활동

상담의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치해줘야 한다.

⑤ 추수(追隨) 활동

교사는 정치활동의 결과 사후지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 라. 특별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지금까지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주로 성격심리학과 상담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이 경우 인성은 성격으로 이해되며 주로 심리교육적 방법을 적용해 오고 있다.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인성이 다차원적 모습을 지니는 것이라면 심리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방식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중점지도 영역이 타당하다면 각각의 영역에 알맞게 균형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의 기본목표는 「인성교육의 철학 및 목표정립을 통해 도덕성과 인간적인 덕성함양의 내실화로 세계 속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지도 덕목을 4대 중점지도 영역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생활습관 영역 - 기본예절,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 ② 자아확립 영역 - 정직, 근면, 성실, 자주, 신의, 책임의식
- ③ 효도와 경애 영역 - 효도, 경애, 전통윤리·예절
- ④ 공동체 의식 - 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봉사, 정의감, 민주시민 윤리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의 특별 프로그램은 위의 4개 영역에 있는 덕목들을 그 주요내용으로 선정, 조직하여 도덕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적 접근방법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지배적 방식은 심리교육적 접근에 의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개발되어 왔다. 심리교육(psychological education)은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아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통찰을 증진시키는 정의적 교육이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대인적, 정의적, 심리적 행동과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관련된 개념과 기술을 가르치는 절차 혹은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재창<sup>20)</sup>은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예로서 합류교육, 감성수업, 활동집단 지도, 발달지도 경험, 마술의 원, 가치관 명료화, 대인관계의 촉진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심리교육적 접근의 프로그램들은 그 과학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여타의 접근방법과 상호보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선할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인성의 다 측면적 성격과 개발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성격으로서 인성을 심리교육적 접근에 의해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행동의 사회·문화적 결정요인과 인지발달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제시한 4개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이상의 모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를 설정할 수 있겠다. 가상적 프로그램들로는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자아개념 형성 프로그램, '나는 누구인가' 프로그램, 뿌리 찾기 프로그램, 세시풍속 체험학습, 내 고장 인물 찾기 프로그램,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발견하는 문제와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자아개념 육성프로그램이나 자기발견과 성장을 도와주는 성찰노트<sup>21)</sup>등이 있고 상담원리와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특정 정서 통제능력 향상 프로그램, 급우관계 조정능력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고 있다. 자기발견과 성장 프로그램에는 인간관계, 고민해결, 자신의 객관

20) 이원희·강원석(2002), 「인성교육의 접근방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4참조

21) 김남선(1998),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책



적 이해, 가치결정, 신념과 인생목표, 학업성찰, 능력과 직업진로 등의 문제들을 주제로 하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정서문제와 관련하여 정서지능(EQ)개발 프로그램과 심리치료를 위한 마인드 맵(mind map)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원리의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Ellis의 성격 및 심리치료이론을 활용한 합리적-정서적 치료(Rational-Emotive Therapy : RET), Glasser의 현실치료적 상담 프로그램, Williamson의 특성요인법(trait and factor theory) 등을 들 수 있다.<sup>22)</sup>

### III. 결 론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와 편의주의 및 생명경시풍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의 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인성교육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의 인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인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인성과 관계되는 낱말로서, 인품, 인격, 성격, 인간성 등이 비슷하게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인성이란 말은 인간다운 특성으로 개성과 인격, 도덕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람직한 인성이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자신을 존중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갈수있는 성품을 말한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인성은 교육에 의하여 성장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인성교육이란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인간다운 품성을 함양하거나 고양시키는 교육이라고 할수있다.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서의 성품, 즉 인성을 갖춘 것으로 볼때, 인성교육은 지·정·의 및 행  
22) 이원희(2002), 「인성교육의 접근방법」,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2~26

동적 측면 모두에 걸치는 통합된 전인으로서의 인간교육이 될것이다. 즉,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러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화롭게 통합해 주어 고운 마음을 가꾸어 가도록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바람직한 가치실현을 돕고 더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말할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 및 사회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가정과 사회와 더불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도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도덕과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라 전 교과와 관련하여 통합된 의미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 수업 뿐만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 져야하고 '학교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은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어야 진정한 인성교육의 완성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현근(2001), 「덕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학교 인성교육의 올바른 방향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상북도 교육청(1995), 「인성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생동감 넘치는학교」, 실천자료 4-1
- \*교육월보 통권 178호(1995),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 \*김남선(1998), 「인성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내일을 여는책
- \*김석태(2000),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1997), 「교육방송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방향에관한탐색」, EBS교육방송
- \*김충기(1998), 「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교육과학사
- \*박성신(2001),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내용 분석」,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화(2001),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과의 대화학습과 실제 수업 운영」,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1999),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강원석(2002), 「인성교육의 접근방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중(2001), 「인성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세구 외 옮김(1995), 「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문음사